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복지포교로 지역에 회향”

도봉사암련 자우스님

“현대사회는 시스템사 회입니다. 지역포교를 위 해서는 인근사람들이 연합하여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불교가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프로그램을 사암련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서울 도봉사암련회장 자우스님(담강사 주지). 스님은 이를 위해 “사암련 차원의 복지법인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근 성북구와 강북구 사암련과도 유기적인 협조와 교류강화를 서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사암련회회는 현재 간부가 20명이다. 나머지 스님들도 전원 포교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리고 소입은 2년마다 순환하며 맡는다. 스님들은 지역포교 대표성과 각 단계간 장구역할을 하는 사암련의 소임을 맡으면서 지역정서를 이해하며, 안목을 키우고 있다.

도봉구사암련은 매년 1회 구민을 위한 가림법회, 매년 2회 자체간담회를 연명으로 개최하고 있다. 내



“올봄 도봉구민을 위한 가림법회에 참석한 사암련스님들.년부터는 지역 문화행사와 방생행사를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도봉사암련은 지역복지시설 위탁을 위한 복지법인설립 준비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불교가 문화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회장 자우스님의 원칙이다. 도봉사암련은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인근 사암련과 연대하여 복지법인 설립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자우스님은 “사암련의 다양한 활동여부에 따라 몇 년 안에 지역적인 차별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포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포교비중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복지시설 운영 법인 추진

무등록 사찰 포용 계도나서

드르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강북구에서 분구되면서 창립된 도봉사암련은 도선사 등 강북지역 대표사찰이 즐비한 인근 강북구와 달리 도봉산을 중심으로 산재한 소규모 사찰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다보니 각 종단등록사찰이 50개인 반면 무등록적인 무등록사찰도 50여개에 이르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불교발전은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단이나 사세를 구분하여 분리하기 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도봉구 사암련은 무속적인 사찰도 끌어안아, 이들 사찰이

목포불교회관 29일 개관

불자 1백여명 모금 불사...포교·문화공간 활용

목포불자 100여명이 낙후된 지역 불교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목포불교신행회(회장 난야성)는 29일 12시 목포불교회관을 개관식을 거행한다. 목포시 무안동에 들어서는 목포불교회관은 목포불교신행회 회원 1백여명이 10개월 동안 십시일반으로 불사금을 모아 불자들을 위한 깨달음의 공간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쓰여진다.

건평 40평규모의 목포불교회관은 목포불교사암련의 회의공간과 호스피스교양장, 시민 일자리 소개소, 시민사랑방, 불자교육도량으로 활용

된다. 또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개설해 지역사회 문화공간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1일 창립된 목포불교신행회는 목포지역의 불교활동가 50여명이 ‘불자로서 행을 실천하여 침체된 지역불교를 일으키자’고 발원하며 창립했다.

창립이후 선방스님을 위한 치질, 백내장수술 지원과, 교도소 법회 및 장기수후원, 장의열불사, 무안연꽃축제 무료차시음회, 군부대 지원사업 등을 펼쳐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10개월만에 회원도 100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행회가 주력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군부대 지원사업의 경우, 인근 목포 지산부대는 10개월 동안 법회와 공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병이 불교에 귀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행회는 자체적으로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풍물패도 창립하여 활기찬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살아있는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회장 난야성 보살은 “앞으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재가불자 교육사업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pia.com



대구사원주지련과 광주사암련은 8일 김의사에서 영·호남 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개최했다.

집외사서 꽃핀 영호남 화합

대구·광주사암련 대법회 사부대중 5천여명 참석

대구불교사원주지련연합회(회장 원명)와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회장 성

회)는 8일 성철스님 생가인 산청 집외사에서 영호남불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천문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법어를 통해 ‘영호남 불자들이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한 김의사에서 너와 내가 없는 집착과 이반의 굴레에서 벗어나 맑고 적극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구불교사원연합회와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는 16년 동안의 교류와 협력을 기념하여 사암련기를 교환했다. 주유직 광주지사장

불교지도자 호국법회

27일 경남도청...고산스님법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상남도 불교협의회(회장 세민)는 27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국가 경제회생으로 민족번영을 기원하는 경남불교지도자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고산스님(쌍계사 조실)의 법문과 불교지도자선언문 채택 불교발전 간담회 등의 순서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도선사서 생명방생법회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도선사에서 생명살리기 환경방생법회를 개최한다. 02)735-5864.

태고종

총담대중사 소신 3주기
총담대중사 소신열반 3주년 기념법회가 24일 오후 1시 호명산 감로사에서 봉행된다.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나뉘어 진행될 추모재에는 지성 총담대중사 문도회장스님을 비롯한 문도들과 주오사찰 주지, 승가사와 감로사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2)2294-3418

용천사 극락전 낙성

인천 용천사주지 대은 극락전 낙성법회가 해운 승정스님과 해운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 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일 봉행됐다. 이날 낙성을 한 극락전은 2층 전통목조양식으로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약왕보살이 금동불로 봉안돼 있다.

진각종

조물론 축하메시지 받아
효암 통리원장은 14일 진각종 창종 54주년을 맞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으로부터 축하메시지를 받았다. 박태화 위원장은 축하메시지에서 “창종 54돌을 맞이하는 귀 종단의 전체 불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거리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새 세기의 첫 해 6월에 창종일을 맞이하는 귀 종단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 벌여나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륜종

통일기원 영령천도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화해와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호국영령을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민족화합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20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02)733-4445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전통양식 대웅전 기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헤도은)은 9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불사 기공식 법회(사진)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헤원스님은 “누구의 집이 아닌 바로 내 집을 짓는 것이니 내 마음 가운데 심주를 세우고 매순간 정성을 기울여 나간다면 세세생생을 함께 할 도량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부산지원은 목조양식의 108평 대웅전 불사를 시작으로 중부소 요사채 선방 등이 차례로 건립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산골소녀 영자양 불문 귀의

산골소녀 이영자(19·사진) 양이 최근 고향 인근의 암자에서 머리를 깎았다.
지난 2월, 아버지의 피살과 후회회장의 사기 등 어린 나이에 세상의 풍진을 맛보아야 했던 영자 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인의 눈물과 세상 인심을 걱정케 했던 그는 “편하게 쉬고 싶다”며 3월 23일 머물고 있던 삼척경찰서 내 임시거처를 떠나 산골암자를 찾아가다.
이 양은 최근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백일기도를 끝으로 이곳 암자 주지에게 간청, 삭발을 하고 승복까지 입었다. 이 양이 머무르고 있는 암자측은 “이 양이 속세를 끊고 싶으며 삭발을 간절히 원했다”면서 “현재는 안경도 건강상 상태이며 수행 장소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vatar Center'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Six Secret Methods' (六壬來情秘法) with detailed text and a book image.

Large advertisement for 'Tongjong Ogaopi' (통종 오가피의 신비)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promotional text.